

맨유 페르난데스, EPL 단일 시즌 최다 어시스트 '21개' 달성

등록 2026.05.25 09:30:55



[맨체스터=AP/뉴시스]맨유 페르난데스, EPL 단일 시즌 최다 도움 작성. 2026.05.17.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단일 시즌 역대 최다인 21개 도움을 작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맨유는 25일(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시즌 EPL 최종전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에서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앨비언을 3-0으로 완파했다.

페르난데스는 이날 시즌 21번째 도움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지난주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에서 티에리 앙리(은퇴), 케빈 더브라워너(나폴리)와 함께 EPL 단일 시즌 최다 도움 타이 기록 (20도움)을 이뤘던 페르난데스는 이날 전반 33분 정확한 코너킥으로 파트리크 도르구의 헤더 선제골을 도왔다.

올 시즌 자신의 35번째 리그 경기에서 21번째 도움을 작성한 페르난데스는 이 부분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앞서 잉글랜드축구기자협회(FWA)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한 페르난데스는 시즌 공격 포인트 30개(9골 21도움)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맨유는 전반 44분 아마드 디알로와 메이슨 마운트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에 이은 브라이언 음뵈모의 추가골로 점수 차를 벌렸다.



[맨체스터=AP/뉴스시스]맨유 페르난데스, EPL 단일 시즌 최다 도움 작성. 2026.05.17.

그리고 후반 3분에는 페르난데스가 도르구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강슛으로 썬기를 박았다.

지난 1월 임시 사령탑으로 부임해 맨유를 EPL 3위에 올려놓은 마이클 캐릭 감독은 정식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맨유는 승점 71(20승 11무 7패)로 리그 3위를 차지하며 2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권을 따냈다.

반면 UCL 진출까지 넘봤던 브라이튼은 이날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브랜트포드(승점 53)를 제치고 리그 8위를 기록, 다음 시즌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티켓을 확보해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유럽클럽대항전 진출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